

'열린 문화' 위한 경쟁적 동반자로

두 계간지 '창작과비평' 및 '문학과사회'에 기대한다

장석주

문학평론가

「문지」와 「창비」에의 추억

문청 시절 「창작과비평」이나 「문학과지성」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다방이나 음악감상실 같은 데서 시간이 날 때마다 펼쳐 읽곤 했던 우리 세대에겐 그것의 문학적 권위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우상이었다. 그 계간지들을 읽으며, 우리는 왜 문학을 하는가, 혹은 우리는 왜 문학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학인됨의 존재론적 질문들을 던지며, 삶과 세계의 인식에 대한 새로운 문학적 표현을 위하여 밤을 새우며, 피를 말리는 듯한 고통마저도 서슴지 않았었다. 우리는 거기에 실리는 비평들을 읽으며 문학적 표현이 함의하고 있는 삶과 역사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눈뜨고, 거기에 실리는 시와 소설, 창작들은 앞으로 써야 할 작품의 모범적 규범, 혹은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하나의 봉우리들로 받아들였다.

그 계간지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던 80년대 문턱에서 허망하게 단두대의 이슬방울로 사라져버렸을 때, 그 계간지의 문학적 세례를 받고 그 계간지의 그늘 밑에서 문학을 익혔던 우리는 고아들처럼 갑자기 닥친 상실감을 주체하지 못했다. 내 개인적 경험으로는 「문학과지성」의 폐간호가 되었던 그 해 여름호에 최초로 서평원고를 청탁받아 교정까지 다 보고 원고료까지 받은 뒤였는데, 신문보도를 통하여 폐간소식에 접하고 한동안 멍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 악동의 짓궂은 장난에 방어할 힘없이 떨어져버리고 마는 한송이 꽃처럼 두 계간지에 닥친 비극적 종말은 우리 시

대에 조만간 도래할 문화적 암흑기의 한 전주였다.

그리고 여덟해가 빠르게 지나갔다. 최근 그 여덟해의 긴긴 공백을 딛고, 다시 「창작과비평」은 복간호의 형식으로, 「문학과지성」은 「문학과사회」의 창간호라는 형식으로 불사신처럼 부활하였다. 이것은 펜의 칼에 대한 위대한 승리다! 나는 두 계간지들을 밤새워 통독하며, 오래 그 감격을 되새겼다.

「문지」와 「창비」가 강제 폐간된 이후 80년대 문학판은 일종의 탈중심화의 진공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문지」나 「창비」의 주도세력이 의도했던 아니했건간에 문학판에서 「문지」 권위주의, 「창비」 권위주의가 암암리에 공인되면서 문학판의 주도적 이념의 생산, 혹은 그 체계의 확산의 주체였었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타율적으로 해체, 붕괴되면서 불가피한 문학생산구조의 혁신이 요청되었다는 말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 문학적 대응도 달라져야 했다! 두 계간지의 해체 이후 젊은 문학인들에 의한 새로운 문학판의 구조, 새로운 문학에의 몸부림이 무크-동인지 중심의 문학 소집단운동의 백가쟁명의 시대를 낳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비평가가 지적한 터이다. 그리고 그것은 문학을 전문적 문학인의 독점에서 벗어나 대중적 확산의 길을 여는 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르해체, 장르확산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다시 부활하는 「문지」나 「창비」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고통스럽게 그 부활의 의미를 끄집어내도록 살아서 강박관념적으로 작용할 때 그 요청

이번에 복간된 「창작과비평」과

창간의 형식을 취한 「문학과사회」의

대표적 문학이념을 단 몇마디로

정리하기란 어렵다. 다만, 전세대의

'창비' 및 '문지' 그룹이

드러냈던 문학이념상의 이질성이

새로운 차원에서 광범한 문학논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는 이러한 문학논쟁의 가능성이

굳음과 달림의 문화체계에서

부드러움과 열림의 문화체계로,

가치독점의 체계에서 가치공유의 체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을 거부할만한 어떤 자유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두 계간지가 생산해낸 70년대 문학판에서의 주도적 이념체계, 현실대응의 문학방법론의 그늘이 얼마나 짙게 드리워졌었던가를 되새기게 한다.

「현세 부정주의」와 「비판적 긍정주의」

「창비」와 「문지」 사이의 문학이념, 지향성, 세계관적 기반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물음은 70년대 이후 아직도 그 시효성이 끝나지 않은 물음이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소시민적 지식인문학의 몰락을 발설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민중문학은 노동운동의 헤게모니 투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반론이 나오는 공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이 문제를 단순화, 추상화시켜 말하는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그 어려움은 이것이 고정불변의 '정태적 틀'로 결정되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 생산집단 내부에서 끊임없이 변모, 굴절, 분화하는 세포분열을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가중된다.

「창비」와 「문지」의 대표적 문학이념을 정리해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거칠게나마 정리한다면, 전자가 전면적 현세 부정주의라고 한다면, 후자는 비판적 현세긍정주의의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가 문학 역사의 주체로서 민중개념을 내세우고, 당위론적-현상타파적 문학이념을 지향한다면, 후자는 그 현실적 실체로서 시민을 내세우고, 객관적-현상파악적 문학태도를 견지한다. 전자의 문학이 직접적 현실개조, 물적 세계기반의 재구

廉想涉全集

- 1 萬歲前·해바라기·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냐 - 값 7,000원
- 2 사랑과 죄 - 값 7,000원
- 3 二心 - 값 6,000원
- 4 三代 - 값 7,000원
- 5 白鳩 - 값 7,000원
- 6 牡丹受 필 때 - 값 6,000원
- 7 驟雨·花冠 - 값 7,000원
- 8 점은 世代代를 둘러서서 - 값 7,000원
- 9 초기 단편 - 값 6,000원
- 10 후기 단편 - 값 6,000원
- 11 후기 단편 - 값 6,000원
- 12 評論·隨筆集 - 값 5,000원

〈별권〉廉想涉文學研究 - 값 7,000원

**오늘의 인문사회과학을 주도하는
찬연한 금자탑**

김태준·洪大容 評傳 - 값 5,000원

최창조·韓國의風水思想 - 값 5,000원

정동오·韓國의庭園 - 값 5,200원

강대기·현대도시론 - 값 4,000원

김현·文學社會學 - 값 3,200원

윤내현·商周史 - 값 5,700원

김한주·中國古代文學史 - 값 3,800원

김희성·印度哲學史 - 값 4,500원

문선규·中國古代音韻學 - 값 5,800원

고철환·수리분류학 - 값 4,800원

이민호·歷史主義 - 값 4,500원

車仁錫·사회인식론 - 값 6,000원

모리스클라인·朴世熙譯·수학의확실성 - 값 7,000원

와인버그·康英啓譯·중세철학사 - 값 4,700원

미셀루코·李光來譯·말과 사물 - 값 6,000원

육관린·宋基中譯·遊牧民族帝國史 - 값 5,200원

R·피어슨·김윤민譯·기후와 진화 - 값 6,000원

필리스틴·羅慶洙外·영국의산업혁명 - 값 4,700원

라카토스外·초승욱外·현대과학철학논쟁 - 값 8,000원

벤야민·潘星完譯·발터벤야민의文藝理論 - 값 4,500원

아우일바하·金禹昌·柳宗鎬譯·미메시스 I - 값 4,000원

아우일바하·金禹昌·柳宗鎬譯·미메시스 II - 값 3,500원

갈포퍼·李漢龜外·열린사회와그敵들 I - 값 3,500원

갈포퍼·李漢龜外·열린사회와그敵들 II - 값 4,000원

맥렐런·申午鉉譯·칼마르크스의思想 - 값 3,800원

柳宗鎬·사회역사적想像力 - 값 5,000원

金達鎮譯·唐詩全書 - 값 9,000원

민음사

“해방후 민족사학의 가장 큰 수확”

「洪以燮全集」전10권 편찬



실학을 중심으로 한 근세사상사와 항일 독립운동사에 독보적인 자취를 남겨 해방 후 사학계의 대표적 존재로 손꼽히는 홍이섭박사(1914~1974)의 전집이 출간을 앞두고 있다. 전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홍이섭박사의 모교이자 박사가 타계하기 직전까지 봉직했던 연세대학교 출판부.

홍이섭박사의 사학은 민족이 당면한 문제들을 회피함이 없이 정면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온 것이 특징. 따라서 식민지사관의 극복은 그의 가장 큰 과제였으며, 이를 위해 학술논문은 물론 일반 교양잡지와 신문에 역사관계 논설, 특히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한 글을 많이 썼다. 연세대는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고의 수집작업을 끝내고 이를 분야 및 주제에 따라 10권에 나누어 실기로 했다.

①권 과학·기술사 연구 ②권 다산 정약용 및 실학 연구 ③권 천주교사 및 외교사 연구 ④권 근·현대사 연구 ⑤권 서평 및 史論 ⑥권 수상·수필 ⑦권 전기 인물론 ⑧권 사상사·정신사 연구 ⑨권 영·불문논저 ⑩권 고대사·신화 연구로 이루어질 이 전집은 금년중 두권을 펴내는 것을 시작으로 90년까지 完刊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재고보와 연희전문 시절, 湖岩과 爲堂의 가르침에 큰 감화를 받은 홍이섭박사는 1944년 「조선과학사」를 출판, 당시로서는 미개척분야였던 한국과학사에 제일보를 내디딘 이래 전후 실증주의사학이 주류를 이루던 사학계에 식민사관 극복의 가치를 내걸고 丹齋와 白巖의 맥을 잇는 민족사학을 부식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또 4·19직후 「4월혁명의 史的 的의」란 글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으며, 만년엔 「채만식론」 「한용운의 민족정신」 등을 발표, 문학작품을 역사연구에 활용하는 선각자적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홍박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에 열심히 출석케 하는 데는 책보다도 새로운 강의 노트가 더 효율적이라는 신념 때문에 매학기 새 강의노트를 작성하면서도 저서를 내지 않기로도 유명했었다. 이번 홍이섭박사의 전집 발간은 민족사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대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진우 기자

성의 세계형성적 문학이라면, 후자의 문학은 질문의 양식, 반성의 양식, 비판의 양식으로서의 세계해석적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세계-자아에 대한 문학방법론적 대응이 비해체적이라면, 후자의 그것은 해체적 대응으로 변별된다.

그리하여 전자가 문학기법면에서 리얼리즘을 선호한다면, 후자는 실험주의적 모더니즘의 기법을 앞세운다. 전자가 문학의 주제, 역사의 주체는 기층생산 민중이다, 따라서 문학은 민중적 전망을 획득하는데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후자는 그 주체로 각성된 중산층 지식인을 내세우고, 소시민적 지식인의 자기반성, 세계이해, 현실재구성을 통한 시민적 전망의 창조에 매달린다. 이런 두 집단의 이질성에 대한 유비상관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 민중/시민, 평등/자유, 급진적 변혁/점진적 개혁, 작품 속의 현실반영/작품 속의 현실해체, 집단적 전망/개인적 전망,…….

감정의 소모전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복간된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사회」에서 가장 돌출하게 솟아 있는 읽을거리는 「문학과사회」의 「사회변화와 문학적 인식」이라는 기획이다. 이 기획은 「창작과비평」이 그 앞머리에 내세우고 있는 좌담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의 지리멸렬한 비생산적, 자기소모적 이론 싸움의 적전분열에 비해, 논리의 집중성, 체계성, 생산성이 훨씬 돋보인다. 특히 70년대의 백낙청-민족적 민중문학과 80년대의 김명인-민중적 민족문학의 성립기반의 실제

와 그 헛점을 치밀하게 파고들어 그 허구성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춘 정과리의 「민중문학론의 인식구조」는 70년대의 「문지」노선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문지」제1세대와의 관계를 이념의 단절이 아니라 계승 속의 자기갱신을 내세우는 「문학과사회」 편집동인들의 문학이념 투쟁이 「문지」제1세대의, 방어를 위한 공격이라는 소극적 태도를 깨고 나와, 민중문학 전반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공격적 전면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싸움은 「창비」이념을 계승하는 80년대의 젊은 민중문학론자들의 반론이 제기되지만 한다면, 아마도 80년대를 통틀어 가장 격렬하고 광범위한 이론 싸움으로 전개되어나갈 충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싸움이다.

그러나, 삶의 전체성에 매개되지 않는 「문지」나 「창비」 진영의 논투는 감정의 무한소모전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80년대 말의 「문지」와 「창비」의 부활은 어느날 갑자기 마음씨가 좋아진 권력자의 시혜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 자체 역량의 부단한 깨어 있음, 그 노력과 의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폭발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얻어진 것이다. 이것을 헛되이 쓸 수는 없다. 나는 진정성을 향한 우리의 「열린 삶」, 「열린 세계」를 위하여 「문지」나 「창비」의 두 집단에게 청원한다. 굳음, 단합의 문화체계에서 진정으로 부드러운, 열림의 문화체계로, 가치독점의 체계에서 가치공유의 체계로 함께 나아가기를!

민중은 봉기했으나
민족지도자는 말이 없었다

폭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에서
사람들은 오직
희망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정신세계사

☎ 733-3135-7



티벳 마지막법왕,
제14대 달라이라마가 통한의 기록

티벳, 나의 조국이어

고요에 싸인 평화의 나라 조국 티벳이 저들의 군화아래 무참히 유린되는 것을 고뇌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만 했던 통한의 티벳 마지막 통치자 제14대 달라이라마 텐진 가초. 달라이 라마의 신분은 또한 살아있는 부처로 숭앙받는 절대적인 종교지도자이기에 폭력 앞에서도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그의 고뇌와 연민은 슬픈 미소로 승화될 수밖에 없었다.

원광대 교수 김철·전북대 교수 강건기 공저
정가 3,000원/화보 12면 포함 224면